

비리와 노조 탄압으로 얼룩진 세종호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세종호텔노동조합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십시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은 지난 9월부터 “구조조정 중단과 부당전보 철회, 민주노조 사수와 교섭 재개, 기본급 8.7퍼센트 인상, 적정인원 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탄압과 방해 공작을 뚫고 조합원 97.2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 설립 35년 만에 당당히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했습니다.

아침 · 점심 · 저녁 홍보전을 비롯해 호텔 앞 1인 시위와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10월 28일에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 사회단체 1백50여 명이 사상 최초로 호텔 앞 연대집회를 열었습니다. 부당전보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며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사측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11월 3일에는 ‘하루 천막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똥줄이 탄 사측은 집회 참가를 위한 연차휴가

신청을 불허하는 등 온갖 ‘꼼수’를 부리며 불법 지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이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결성을 지원한 친사용자 노조 조합원들조차 우리의 투쟁이 전체 세종 노동자를 위한 투쟁임을 공감하고 승리를 기원하는 정서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급한 불 끄려는 마음으로 대표교섭권이 확정되지 않은 친사용자 노조와 임금 6퍼센트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호텔업계의 호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임금 인상을 거부해 온 사측이 우리 세종노조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물러서게 만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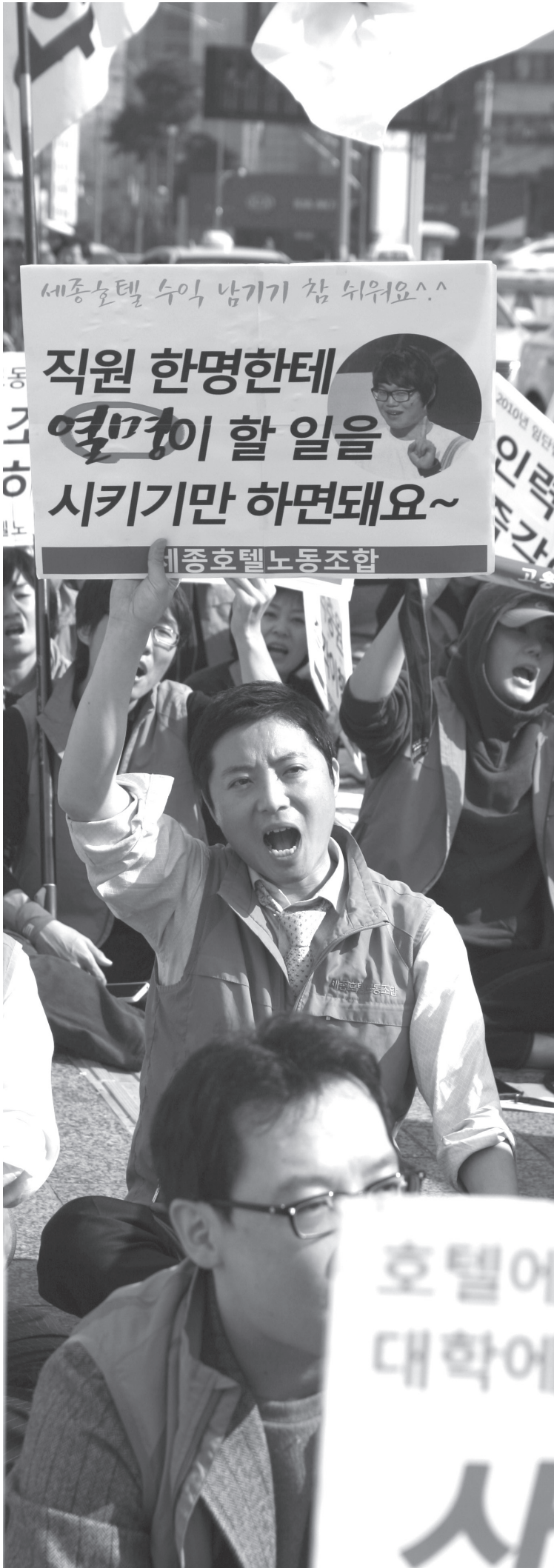
많은 관심과 지지 · 연대를 호소합니다!

회사의 불법 · 부당한 탄압에 맞서 우리 세종노조는 35년 만에 단결과 투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세종호텔 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투쟁이자, 경제 위기에 고용 불안과 임금 삭감의 불만을 속으로만 삭혀 왔던 다른 노동자들과 같은 처지에서 나온 ‘정의로운’ 투쟁입니다.

우리 세종노조는 지난 40여 일 동안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높이며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탄압이 거셀지라도 민주주의와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 · 서민의 저항의 물결은 계속돼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1퍼센트의 탐욕에 맞선 노동자 · 민중의 저항이 불붙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노조도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하기 위해 한미FTA 반대 투쟁에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세종노조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세종호텔 사측의 탄압과 횡포

지난 2년 동안 세종호텔 사측은 무려 네 차례나 부서 통폐합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해 인력을 줄이고 호텔 직원들의 업무와 노동강도를 늘려 왔습니다. 이 때문에 퇴사가 늘어났는데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우리 직원들은 환자가 속출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적정 인원을 충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합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측에 정면으로 맞서 온 세종노조를 '눈엣 가시'처럼 여긴 사

측은 올해 7월 복수노조법 시행을 악용해 친사용자 노조 설립(세종연합노동조합) 결성을 사주하고, 우리 세종노조와 모든 교섭과 대화를 중단한 채 오로지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노조를 무력화하려고 노조 간부와 임원들을 부당 전보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11년 동안 호텔 프런트에서 일해 온 쌍생아 임신 5개월의 여성 노조 간부를 홀 서빙 업무로 부당 전보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노조 부위원장 등 4명을 또 다시 부당 전보했습니다.

비리의 도가니, 세종호텔 주명건 회장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 재단 소유입니다. 사측의 강공 드라이브는 구재단 완전 복귀를 위한 수순입니다. 세종대 재단 전 이사장 주명건은 부패비리 사학의 전형입니다. 그는 인건비 횡령 등을 저지르다 1988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1990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장인의 도움으로 학내 시위를 초강경 진압하며 전교생을 유급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세종대 이사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주명건의 행적은 교비로 부동산 투기, 공사비 과다 산정, 교수 채용 부정, 업무추진비 등 각종 비용 부당집행, 이사회 회의록 조작, 학생·교수 탄압 등 사학재단 비리의 백화점입니다.

결국 그는 2004년 교육부 감사를 통해 113억의 회계부정과 1백58건의 잘못을 지적받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는 경징계만 내린 채 7명의 임시이사 중 4명을 주명건이 추천한 인물로 배

정하면서 주명건 복귀의 발판을 마련해 줬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주명건은 세종대 재단 정이사로 복귀하려 했지만, 지난 비리가 워낙 심해 정이사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7월에 취임한 세종호텔 회장직은 재단 재장악의 발판인 셈이고,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에 숨겨진 속셈은 비리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민주노조 죽이기인 것입니다.

주명건은 이전에도 계열사에서 편법으로 연간 14억 원을 급여로 받아 챙기고, 세종호텔에서 고객들이 찾가지 않은 영수증을 판공비로 처리하는 등 복마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번 이윤도, 학생들의 등록금도 '내 돈'으로 여기는 것은 주명건의 오랜 버릇입니다.

세종노조는 수년 동안 노동조건 악화 시도를 저지해 왔고, 주명건의 복귀도 반대해 왔습니다. 세종노조는 이번에도 저들의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세종호텔노동조합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sejongnojo>)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사측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세종호텔 조합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구조조정과 부당전보를 자행하는
세종호텔 사측과 세종대 재단에 항의전화 해주십시오.**

대표이사 : 02-3705-9001 임원비서실 : 02-3705-9010 관리부장 : 02-3705-9008 세종대 재단 : 02-499-4121